

목포의 맛·亞문화예술 '팔딱'...글로벌 파시 보러 오세요

목포항구축제 20일 개막...22일까지 목포항·삼학도서 전통 파시 재현·공연·미디어·난영가요제·도깨비 시장

모든 세대가 목포의 전통인 '파시'를 경험할 수 있는 목포항구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목포시는 2023 목포항구축제를 이 기간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목포항구축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지정 축제로도 지정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목포항구축제는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인 '파시'를 다룬다. 올해 축제 주제는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이다.

축제에서 목포만의 맛과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어시장을 표현한 '파시 만선이다' (전통 파시)를 즐길 수 있다.

만선의 꿈을 실은 배가 해상 행렬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목포항구바닷길에서는 항구의 바닷속 어종을 담은 미디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글로벌 파시 항구 주제 공연과 아시아 문화교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축제장은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3개의 공간으로 마련된다.

'파시존'에서는 선상 무대를 만들어 전통 파시를 재현하고 해상 행렬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도깨비 난장과 노 짓기 대회, 어물전 수라간 등 먹거리·즐길 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항구존'에서는 목포의 근대 역사와 1970-1980년대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추억의 선장 거리를 조성하고 국내외 다양한 수산물·건어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건맥존'과 '해물 라면존' 등이 식도락객을 맞이한다.

'청년존'에서는 청소년 페스티벌과 청소년 드림하이 콘서트, 서남권 다문화 축제,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대회 등이 열린다. 이곳에서는 범선(코리아나) 승선체험과 조선통신사선 역사여행을 할 수 있다. 목포의 맛을 알리는 '목포미식페스타인(in) 항구'도 즐길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목포항과 삼학도 등지에서 '2023 목포항구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 제공>

축제 개막날 무대에서는 '난영가요제'가 펼쳐진다.

가요제 이름은 '목포의 눈물' (1935)로 인기를 얻은 목포 출신 가왕(歌王) 이난영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축하 무대는 최진희, 현숙, 허잔미, 소명, 박상철, 배일호, 요요미, 장재리, 김희재 등 트로트 가수들이 꾸민다. 폐막 축하 공연으로 펼쳐지는 '바다콘서트'에는 박지현, 김경호 밴드, 팡파레 가수

박동현이 출연한다.

이 밖에도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시장의 모습을 담은 '도깨비 시장'과 '어등 터널' '세계 전통음식 공간' '목포 9미(味) 공간' 등을 운영한다.

목포시는 이번 항구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연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에 도전장을 내밀 방침이다.

문체부 축제 평가는 2년 주기로 치러진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파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본래 취지는 부각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개최...“문화예술특구 품미 가득”

21일~11월5일 향토문화회관 23개의 공연·경연·다양한 체험 '트롯 킴' 송가인 등 유명가수 출연

진도군이 오는 21일부터 11월5일까지 시·사·화·창의 분고장인 진도에서 '2023년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를 연다.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는 23개의 공연과 경

연, 다양한 체험과 전시행사로 이루어져 대한민국 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의 문화와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다.

21일 진도읍에 위치한 향토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공통 주제로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여성·실버·어린이합창단, 초·중·고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오케스트라, 모듬북, 방송댄스 등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 무대를 선보여 지역 청소년들이 그동안 다져온 역량을 선보인다.

또 31일에는 11월1일 군민의 날을 앞두고 축하의 밤 특별공연이 열려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 등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문화예술의 분향인 진도만의 풍부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전승·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도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만의 행사를 넘어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한다

목포신안통추위, 신안 하의면 옥도서 봉사활동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운영위원장 최영수)가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신안군 하의면 옥도를 찾아 다양한 봉사를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는 재목신안군여성회,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목포시지부와 함께 진행했다.

봉사단 20여 명은 주민 50여명에게 이·미용과 장수 사진 촬영 등을 받았다. 또 주민들에게 소염

진통제 1만장을 전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신안·목포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다.

최영수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미래 신안과 목포의 공동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며 "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통합이란 시대적 사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오색숲' 영암 백룡산...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최우수'

편백나무·단풍나무 천연림 터널 6.1km 평탄한 숲길 2시간 코스

오색으로 물든 단풍나무로 널리 알려진 영암의 숲길이 탐방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영암군이 덕진면에서 신북면으로 이어지는 '백룡산 숲길' <사진>을 가을 걷기 좋은 길로 알리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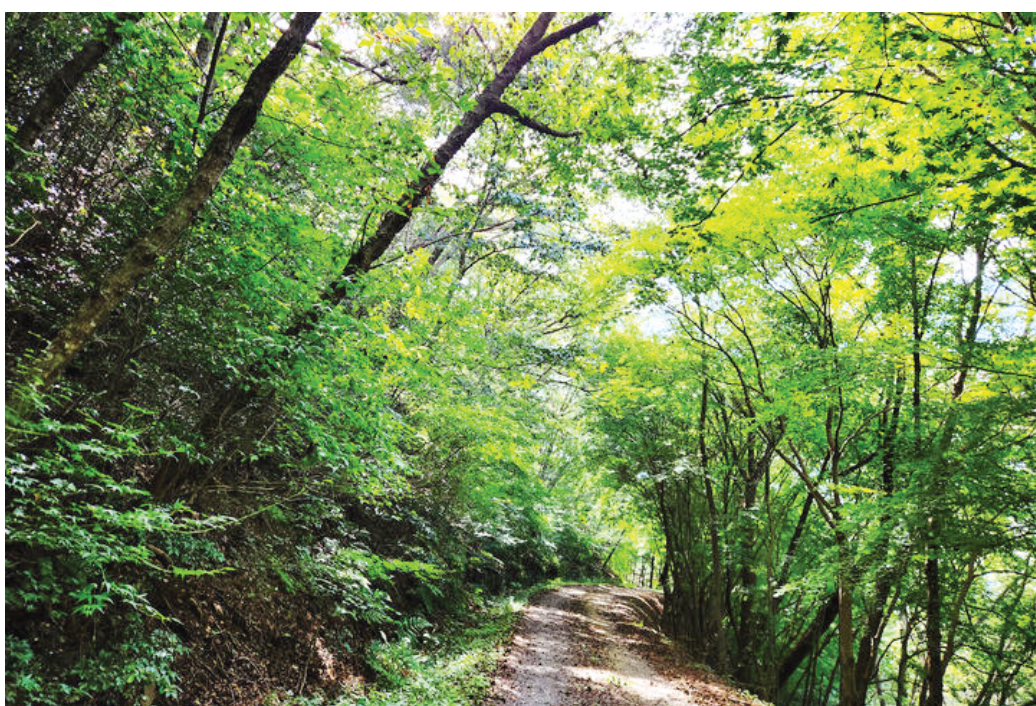
이 길은 전남도가 숲길 이용과 산림생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공모에서 지난달 최우수 숲길로 선정됐다.

백룡산은 월출산 북쪽의 자락이 넓게 펼쳐져 있는 산이다. 백룡산 숲길은 임도로 소나무, 편백나무 등 천연림과 새로 조성된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길이다.

6.1km에 달하는 백룡산 숲길은 평탄한 구간이어서 넉넉잡아 2시간 안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차림으로 쉽게 걸을 수 있다.

가을이면 천연림과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뤄 울긋불긋 장관인 볼거리와 산림욕까지 1석2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백룡산 숲길은 덕진면의 한국제다 영암제2다원에서 10여 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백룡정 포토존을 지나서 신북면 용산리까지 이어진다.



영암군은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선정에 따라 백룡산 숲길 시점과 종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중간지점에도 이정표를 마련해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 가을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백룡산 숲길을 걸으면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암의 숲길을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 고금 섬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가교리서 1.2km 해저관로 내달 착공...넙도·금일 충도 등 혜택

완도군이 섬지역인 고금면 넙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고금면 가교리에서 넙도까지 1.2km 구간에 해저관로를 신설하고 급수관로(1.5km)를 설치한다.

그동안 고금면 넙도의 24가구 주민들은 해수 담수화로 정수된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했으나 시설 노후화로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해 불편이 컸다.

완도군은 해저관로 공법 선정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완도군에서는 해저관로를 통해 상수도가 공급되는 섬마을은 금일 충도·신도, 군외 사후도·토도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공공시설 정보 '공유누리'서 확인해요

무안군은 공공시설 37곳을 지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용 정보를 '공유누리'에 올려놨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공유누리'는 대국민 공공개발지원 공유 서비스이다.

이곳에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관광서 등의 공공자원을 예약·이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물품 등 공공개발지원 정보가 여기 올라왔다.

무안군은 이달 현재 9개 읍면사무소 회의실과 주차장, 무안황토갯벌랜드, 승남문화예술회관 등 37곳을 개방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 가능한 신규 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운영

"치매환자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성 제공"

진도군이 진도개인택시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와 겸진 대상자가 가정에서 센터까지 무료로 오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는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치매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대상자의 안전한 귀가 등 이동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진단검사, 치매치료비 지원과 함께 경증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터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나 진도군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광군,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 2억대 과태료 부과

업체 두 달간 1006건 무단 게시

영광군이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지역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 표지판 등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006건을 무단 게시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내걸어야 한다.

영광군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나섰다.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상시로 정비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불법 광고 현수막을 내건 376건에 대해 총 8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cw@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